

문창남문집

4 흰뚝 제1부

《문창남문집》 간행위원회



민족출판사

문창남문집 4

흰뚝 제1부

《문창남문집》 간행위원회

민족출판사

떠나지 않은 창남군 —간행사를 대신하여

《문창남문집》 간행위원장 남영전

우리 문단의 인기인물이었고 또한 늘 화제에 오르곤 했던 창남군이 추억으로만 남게 된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나는 떠나간 창남군에게 꼭 해주어야 할 일 하나를 성사시키지 못해 《문창남》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료녕의 정철선생님이 창남군의 영결식에 가셨을 때, 창남군의 부인이 정철선생님께 창남군이 모아둔 수필복사본 한뭉음을 보이더라기에 내가 그것을 받아안았다. 이 수필뭉음은 창남군이 창녕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진황도에서 쓴 글인데 그가 출판을 염두에 두고 책이름과 목록까지 다 만들어놓았었다. 만약 이 수필뭉음이 출판된다면 창남군의 세번째 수필집이 된다. 하지만 일은 마음먹은대로 잘 되지를 않았다. 그러던중 창남군의 제자인 안영수씨가 5권으로 된 《문창남문집》을 펴내는 큰일을 발기하여 해냈기에 나는 감개무량하지 않을수 없다.

창남군은 실로 뼈아픈 인생을 살다간 사람이다. 24세의 꿈많은 나이에 9년이란 긴긴 옥고, 2년 넘는 농촌개조생활, 말하기 쉽

고 글로 옮기기도 어렵잖겠지만 정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캄캄
철야의 암흑과 흑한이 가져다주는 뼈아픈 고통을 상상하지 못할것
이다.

그래서 새 날과 새 봄을 맞은 창남군은 서리서리 영킨 원한과
해방의 환희를 뜨거운 눈물로 엮었고 불타는 글로 웨쳤다. 갈증에
못건디여 비물 한컵 받아마시려다가 도리깨로 콩단 두드리듯 매
맞던 옥중생활, 10년만에 철창문을 나와 초라한 차림으로 그가 살
던 옛집을 찾던 쓸쓸한 광경, 아들이 《특무》라고 부친님이 또다시
매맞아 세상떴다는 청천벽력, 《립공속죄》란 말에 문예경연의 극본
을 쓰느라 런 이틀 밤을 꼬박 새웠고 사흘째는 코피를 쏟으며 책
상머리에 까무러치던 모습, 5층 아파트로 새집들이 한 첫날밤에
잠 못들고 깊은 추억의 소용돌이속에 빠졌던 영상...그의 글을 읽노
라면 언제나 가슴이 뭉클해지고 코언저리가 췌해남을 어찌지 못한다.

창남군의 이야기는 늘 끝없는 강물처럼 흘렀다. 같이 기차나
빠스로 여행을 할 때면 그의 이야기는 긴긴 레루와 도로보다 길었
고 호텔방의 모임에서는 그가 이야기판을 독차지하да싶이 하였다.
그의 경력과 수난사는 문우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언제나 민족심과 정열로 끓어넘치는 글발, 구수하면서도 청산
류수인 언변,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양복호주머니에 늘 넣고다니
는 자그마한 거울과 빗을 꺼내여 머리칼을 단장하는 멋쟁이, 그와
같이 있는 좌석에서는 언제나 떠들썩한 폭소가 터져서 좋았다.

이렇게 인상적이던 창남군과의 마지막 만남은 1992년 봄 《흑
룡강신문》 문예부 문학모임에서였다. 창남군이 창녕기업으로 자리
를 옮긴지 반년 남짓한 때였다. 회의가 시작될무렵 그가 회의장에
나타났다. 역시 멋진 양복차림에 환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다소
무거운 표정이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신문사초대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창녕기업을 소개하고 자신의 타산을 토로했다. 밤 10시가 되자 그는 일어서면서 돌아가서 불일이 있기때문에 떠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더러 할빈에 온김에 자기가 안내할테니까 창녕기업을 한번 돌아보라고 신신당부하였다. 이튿날 오전, 나는 한춘군과 함께 시중심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있는 창녕기업을 찾았었다. 그러나 창남군은 약속대로 나타나지를 않았다. 접수실 당직의 말에 의하면 그는 급한 용무로 미처 우리에게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이른새벽에 진황도로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후 창녕기업 본부가 진황도로 자리를 옮겼고 창남군 역시 가족과 함께 그곳으로 이사를 했었다.

진황도 바다가에서 창남군은 수시로 나에게 편지를 띄워왔다. 10권이냐 되는 장편대하소설을 쓴다고 해서 놀랐고 정치경제학을 새로 공부한다고 해서 돋보였으며 외국나들이의 감회를 적어왔기에 새로운 인상을 받았다.

그런데 1996년 봄에 창남군이 배속에 흑이 생긴걸 몰래 병원에 가서 수술해던지고 봉대로 허리를 졸라맨채 그냥 《흰돛》을 날려가고있다는 소식을 편지로 나에게 알리면서 남긴 한탄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그동안 나도 외로운 타향에서 고향을 겪으며 〈흰돛〉을 5부까지 썼다가 다 뒤엎어버리고 상, 중, 하 3부작으로 새로 출항하였소. 새로 쓴 상부 56만자는 올해 여름쯤 조한문으로 동시 출판될 듯. 중부, 지금까지 20여만자 나갔소.》, 《나이가 드니 이제 몸이 여의치 않구만.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먼데. 주요목적은 반드시 완성하고 떠나야지...》, 《올해 가을 한달쯤 휴양하며 길림, 장춘의 벗들을 찾아가 만나려네. 그때 만나세!...》

그해 여름, 온다는 사람은 오지 않고 부고가 훌쩍 날아왔으니 이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닐수 있으랴!

53세의 짧은 인생길에 고향 많았던 창남군은 30년동안 문필

활동을 해온 우리 문단의 영향력있는 시인, 작가이다. 1967년 24세때 그는 한편의 장편서정시때문에 《현행반혁명》으로 몰렸고 옥중에서도 시 쓰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동안 그는 시, 수필, 소설 등 다양한 문학장르로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하지만 그의 작품출판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문창남》 하면 그는 우선 시인으로 유명했지만 생전에 국내에서 시집 한편 출판하지 못했고 진황도에서 쓴 수필묵음은 여태껏 잠을 자고있었다. 처음에 구상하던 장편소설의 10부작 계획도 1, 2부는 출판되었지만 생애 마지막 1, 2년사이 그가 병마와 싸우면서 혼신을 불태워 새로 날리던 《흰돛》의 56만자에 달하는 미완성원고는 유작으로 남았다. 더우기 안타까운것은 새로 쓰던 최후의 유작원고를 문우들과 은사들에게 보내어 수개의견을 요청하였는데 듣는 말에 의하면 정판룡교수님도 이 원고를 보고나서 《...창남이는 이제 대작가야!》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 원고는 지금까지 실종되어 주인의 손에 들어오지 않고있다.

창남군은 참으로 불행했지만 그는 또한 복도 많은 사람이다. 그를 항상 존경하여온 제자 안영수씨가 그가 못다한 일을 훌륭하게 해내었다. 수년동안 안영수씨는 《문창남문학전집》을 간행할 방대한 계획을 세우고 한춘, 정철, 서영빈, 김호웅, 오상순, 김재국, 김홍란 등 시인, 작가, 평론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간행위원회를 결성하고 창남군도 가지고있지 않던 그의 발표작품들을 수집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동분서주하였고 작품의 정리에 심혈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개인의 호주머니를 털었고 뜻을 같이하는 겨레 젊은이들의 힘을 모아 창남군의 시집, 수필집, 중단편소설집, 《흰돛》 제1부, 《흰돛》 제2부, 이상 5권으로 150만자 분량에 달하는 《문창남문집》출판을 성공시켰다.

《문창남문집》의 간행은 우리 문단의 하나의 큰 희사이다. 우

리의 문학사는 《문창남문집》의 간행으로 아름다운 한페지를 장식할 내용이 있게 되었다. 창남군의 글을 즐겨 읽던 독자들은 흩어져 있던 그의 작품, 잠자고있던 그의 작품을 이제 5권의 책으로 향수할수 있게 되었고 창남군을 모르고있던분들은 이제 우리 문단에서 활약하던 훌륭한 작가 한분을 알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될것이다. 그리고 연구가들은 이제 창남군의 자료수집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렇듯 자랑스러운 일을 해낸 후배 안영수씨와 의기투합하여 적극 동참해준 젊은친구들이 고맙다. 동시에 여러 모로 수고해주신 간행위원 여러분과 정성을 다해 멋진 책을 펴내준 출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한 작가의 진정한 생명은 그의 작품이 독자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것이라는것을 저 먼 진황도 바다에서 쉬고있는 창남군에게 전하고싶다.

2006년 10월 25일

장춘에서

서 문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할 때 피보다 진한것은 사랑이다. 정든 혈육과 고향산천에 맺힌 사랑의 뿌리와 줄기줄기...어이하여 루루세월 수난의 상처 아물기도전에 다시금 찢기고 짓밟혀야만 했던가. 찢겨간 그 아픔의 사랑쫂각들이 많아선가 적어선가, 깨끗하고 줄기참이 못마땅해서인가.

남이 총포와 공장굴뚝으로 하늘을 겨눌 때, 물방아 돌리며 갓쓰고 당나귀 타고 부채질이나 하던 량반 따라 달팽이걸음을 하여온 백의동포들, 비리의 법률과 고루한 악습속에 놈들의 일격에도 수월히 빼앗기고 쫓기운 설움이며, 묵이우고 쓰러진 한이며, 동강난 아픔이며, 다시는 그렇게 살수 없었다!

실향민의 설움 안고 눈물 젖은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온 우리 겨레의 발자취를 알려거든 먼저 갈래갈래 물줄기 따라 할아버지 등처럼 휘고 할머니 웃고름처럼 맏혀 날리는 논두렁을 보라. 그리고 광야와 밀림, 높 낮은 산야에 무주고혼으로 묻힌 려사의 무덤과 기념탑들을 헤아려보라!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려사의 책갈피요 리정비이다.

누구나 글로 쓰기엔 너무나 아름답고 힘겨웠다. 그러나 창과 헤쳐온 백도라지 송이송이 퍼렇게 명들어도 맑은 하늘 그리워 청순한 웃음 지었고 만주벌 흙파도우에 흰돛 날리며 방황, 고민, 저

항, 혈투, 개척의 파란곡절 넘어넘어 어디서나 막강한 새 삶의 지평을 열어왔거니, 동아의 한 지맥 따라 꽃피는 《창녕》, 한 수맥 따라 흰돛 날리는 《창녕》! 시대와 민족에 불현듯 선택된 장수별마냥 초인간적 쾌속방사광으로 온갖 비리와 타성, 털근성의 장막을 찢어버리고 겨레의 향심력, 응집력으로 지구촌을 향한 신비한 《인간정토》를 펼쳐가고있으니 얼마나 장하고 슬기로운가.

들을수록 미처버릴것 같은 그이의 장편구술이 없었다면 내가 소설을 쓴다는것마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영웅서사시적 이야기 자체가 나의 붓대를 창해로 밀어주는 힘의 흰돛으로 되었다. 나는 지금 광활한 대지위에 솟은 《창녕》의 창문을 열고 내 시야와 피줄에 확인된 미궁의 숨결과 흐름을 쓰고자 한다. 붓방아로 땀방울을 짙으며 꿈의 만리장성 쌓으며...

저명한 실업가 석산린선생의 피를 물고 걸어온 그 백절불굴 창업고투의 폭풍취우속에서도 림림히 《창녕》범선의 키 잡아나가는 진솔한 새 《천방야담》을 통해 백의겨레와 형제민족간에 점철된 개척사, 중화의 활기찬 운명을 조명하고 태평양을 뒤흔들 막강한 아시아 협동공영의 미래를 진단하는데 장편대하소설 《흰돛》의 부분 꿈이 있노라.

1992년 1월 1일

할빈 창녕에서

지은이로부터

차 례

1. 창녕 고향집 / 1
2. 야마모도와의 박투 / 10
3. 탈출기 / 24
4. 타향살이 / 38
5. 건교 / 52
6. 《9.18》혈풍 / 65
7. 통화의 밀림에서 / 80
8. 눈 내리는 날 / 95
9. 흥매려관 / 109
10. 총소리 / 122
11. 반석의 봉화 / 137
12. 소용돌이 / 151
13. 참화 / 169
14. 삼각산 / 180
15. 광가점원혼(冤魂) / 196
16. 저기압 / 210
17. 어머니 정 / 226

- 18. 건교절 / 243
- 19. 토비굴에서 / 260
- 20. 생사리별 / 276
- 21. 관내소식 / 291
- 22. 백도라지 / 303
- 23. 산성진전투 / 318
- 24. 고아의 운명 / 334
- 25. 동홍성불길 / 352
- 26. 런못동 / 372
- 27. 생 / 386
- 28. 변천 / 408

1. 창녕 고향집

천구백 30년대초엽.

조선 경상남도 창녕군 장수산자락을 타고 웅기중기 자리잡은 석씨마을. 짓밟힌 땅에도 열매는 맺히는가. 청바위틈에 뿌리내린 감나무가지마다 설익은 감알이 푸르러 있고 짝 잃은 두견새 피를 물고 운다.

임진왜란때 저 장수산 피부리 동굴에 문득 서기 비치고 일진 광풍 일더니 삼천군사 거느린 석장군이 나타나 별떼같은 왜놈들을 산단 자르듯 목을 베어 승승장구 올렸다는 장수산!

치를 떤 왜놈들이 종파당쟁 내란의 틈을 타 호시탐탐 기여들 어 조선에 또 장수 날가봐 그 피부리를 잘라버리고 내귀에 대못을 쳐 혈을 눌렀다는 장수산! 그 못구멍에서 석달 열흘이나 붉은 피가 솟구쳐 장수산 골안을 물들이고 마반봉 철쇠 올타리마저 별정 게 달아올랐다는 장수산기슭에 흰 두루마기 입은 한 중년사나이가 걷고있다.

한숨과 울분, 통탄과 저주!

목 잘린 장수산 마반봉을 비창히 쳐다보던 석대를장로는 조용히 기도를 올린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무궁화 삼천리 조선반도에 칼과 창보다도 피리와 붓대를 즐기

는 조선백성이 무슨 죄로 망국의 치욕을 받아야만 합니까. 구국의 <3.1>물결속에 이 불 맞으면 저 불 들이대고 왜놈의 총창에 앞가슴 찢리우면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사오니 착함이 죄오리까, 악마 사탄의 간계로 읊은 악창으로 신음하면서도 원망없이 하나님 료례를 지키여 끝내 만복을 받았사오니 만신창이 된 우리 백성이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남의 땅에 화살 한번 쏜적이 없고 다 빼앗겨도 얼만은 잃지 않고 제 말, 제 글을 지켜온 조선사람, 양처럼 착하고 대처럼 굳센 우리 백의동포를 긍휼히 여기시와 금강산과 묘향산의 아름다움, 백두와 한라의 기상, 동해와 서해의 넓은 뜻을 타고난 참된 그 삶을 되찾아주시옵소서...아멘!》

이때 석씨마을 이웃에 살던 한족 왕서방이 혈레벌떡 달려왔다.

《장로님, 어서 이 <경성일보>를 보십시오. 만주땅 신경(장춘) 만보산에서 중국농민과 조선농민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우릴 <되놈>이라고 때리고 쫓기 시작합니다!》

《뭇이라구?!> 석대룰의 진한 눈섭이 송충이처럼 꿈틀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중국 만주땅 여기저기선 반일구국운동이 시위구호로부터 무력투쟁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간도 장백산을 중심으로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은 그것을 빌미로 탄압의 경찰권을 강화하였고 일본 무력의 강화에 불만을 느낀 동북의 군벌세력은 조선독립운동을 저지하려 들었다. 보쥡 처 서까래 올리듯 중국 지주, 군벌은 조선인을 배타하거나 귀화시키는것으로 일본을 때려보려 했고 일본은 조선인을 방패 삼아 중국에 마수를 뻗치려 했다.

쪽바리 일본 무사도들의 눈에 중국은 살쥔 암탸지였다.

일본관동군 고급참모 기와모도 다이사꾸는 음흉한 계락을 꾸

며 1928년 6월 기차로 봉천(심양) 황고툰역에 들어서는 북양 봉계군별 두목 장작림을 폭사함으로써 일대 혼란을 일으켜 살진 만주 땅을 일거에 삼키려 했으나 대국인의 참을성과 장작림의 아들 장학량의 국민정부와 합류하는 적극성은 일본으로 하여금 발버둥만 치게 하였다.

만주를 먼저 먹어치우려는 야망속에 왜놈들은 조선인과 중국인사이의 리간 도발을 일삼으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중국이 조선인을 학대할수록 조선인이 일본에 기댈것ियो 또한 조선인이 배화침화에 합세하리라는 꿈을 꾸며 왜놈들은 끝내 《만보산사건》을 조작해내었다.

1931년 6월, 중국인 장농도전공사(长农稻田公司) 지배인이 만보산부근의 토지 300헥타르를 지주 12명으로부터 십년 계약으로 빌려 조선인 아홉사람에게 빌려주었다. 이들은 즉시 200여명 조선인들을 동원하여 개간에 착수하였다. 개간비용 3,000원은 일본령 사관 감독하에 있는 조선인민회 금융부에서 조달하고 수전의 설계와 씨앗 90석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지원을 받았다. 지주와 거간군, 조선인사이에 계약상의 오차도 있었거니와 인수로 물길 여는 데 린접된 한족농토에 침수위험이 있다는것이 분쟁발단의 씨앗으로 되었다.

중국농민들은 수로일을 막으려 했고 조선농민들은 강행하려 했다. 아홉명 조선의 개간자 당사자가 중국경찰에 체포되자 일본령 사관에서 중국측에 압력을 가했고 일본경찰마저 출동하여 중일무장쟁방이 대치상태에 처했다. 두쪽 농민들도 대치하여 삽과 괭이로 으르렁거렸으나 사상자는 없었고 일본의 압도적무력하에 물길공사는 완성되었던것이다. 사실상 억울함을 당한건 중국농민측이었다.

그러나 일본특무기관에서 살포한 요언을 몰고 《조선일보》 장춘주재기자는 대서특필하여 남의 땅에서 내 동포가 맞아죽게 됐다

는 악선전으로 조선국내에서 배화척한사상이 고취됐다.

7월 3일, 인천에서는 중국인습격이 시작되었고 신의주, 평양, 원산, 서울, 부산 등지에서 애매하게 학살된 중국인은 127명, 부상자 393명, 물적손해는 250만원에 달했다.

창녕군 채마전에서 수년간 부지런히 남새농사를 해온 왕서방은 몇마지기 땅의 돈도 모았거니와 도고하고 청렴한 석대를장로네 일가와 친교거래를 하고있었다.

석씨랑반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갓 쓴 사람들의 비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였으나 리조 500년 점잖은 유교명예에 시달리다 못해 국력은 날로 쇠약해져가는데 당파상쟁의 혈안들은 목에 들이대는 왜놈의 장도칼도 뭇지 확인하지 못한채 우수수 락엽으로 떨어지니 누굴 따라 무엇을 믿어야만 했던가. 반봉건 개화사상에 남먼저 눈 뜬 석대를은 기울어지는 한반도 운명을 통탄하면서 먼저 박래품 성경의 섭리를 탐독했던것이다.

《이럴수가?!...무고한 백성들끼리 무슨 원쑤가 돼서...》

피비린 배화바람은 창녕에도 불어왔다.

먼저 혼썰난 한족은 비단장수네 집과 《락양》료리집이었다.

불난 집 밤알 쫓듯 청단, 홍단, 다색단, 모본단, 명주, 모시 펄 펄이 빼앗아 《친구요 형제요》 하던자들이 강도떼마냥 입으로 물어 뜯고 칼로 잘라 도망질한다.

《애고 애고》 울부짖는 비단장수내외는 삼노끈에 묶이워 콩단처럼 도리깨아래 덩굴고 놀란 닭들이 이리저리 울 넘어 풍졌다.

《락양》료리집 소주 배갈은 굶주린 입들에 개울물처럼 흘러들고 비계찜, 갈비찜, 등심살튀김들이 아드득빠득 소리나게 없어진다.

《요 되놈 가시내야! 평소애 돈없는 상놈이라고 천대를 해도 유분수지. 내 오늘 고마 니 ××맛도 좀 볼란다. 히히...》

연지곤지 발간 복숭아볼에 단순호치 반개하고 쪽발런보를 곱게 옮겨 살금살짝 권커니작커니 흥등록주 주홍을 돈구며 나그네 주머니나 털던 한족갈보들이 어찌 오늘의 일진풍뢰를 뜻하였으랴.

이 손에 잡히여 너풀, 저 팔에 끌려 너풀, 목 꺾인 런꽃 풍랑 우에 떠돌듯하는데 석대룰이 지팽이 휘두르며 들어섰다.

《손들을 못떨가?! 청천벽력을 맞을놈들! 만주땅 사실을 딱히 모르고, 설사 일이 있었더라도 여기 온 대국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리도 행패들이냐? 사람을 죽여도 가만있는 왜놈의 심사 엇볼지어다. 남의 장단에 춤추다 나라까지 잃고 이게 무슨짓인가. 대국백성도 왜놈의 등쌀에 우리처럼 허덕이는데 같은 신세에 누구 웃으라고 이것들인가. <내선일체>라더니 과연 조선사람이 일본귀신 되고파 이 지랄들인가?! 하나님이 진노하면 천벌을 받으리라!》

석장로님하면 석장군 자손혈육이라 동네사람들이 멀리서도 머물 수긋하며 길을 피했던터라. 악마구리 끓던 늪에 돌을 던진듯 수라장이던 술집 뜨락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분노에 떨린 사람들이 썰물처럼 싱겁게 물러섰다.

《장로님, 만주동포들의 한이나 풀고저...》

《한이란 무신 한이며 피 맺힌 망국노의 그 한을 어디다 어떻게 푼단말이뇨...잘못을 사과하고 돌아들 가거라. 팔도가 뒤집어져도 우리 창녕이 이러면 못썬다.》

《락양》술집 부인들은 석대룰앞에 삼수갑산 물방아대가리처럼 고두재배하며 런신 《스파렌 세세 세세! (석대인, 고맙습니다.)》라고 한다.

이때 장도칼 끌고 멀찍이 서서 강 건너 불보듯하던 창녕주재소 일경 야마모도 겐이찌가 안경알을 희번덕이며 들어섰다.

코수염이 췌기벌레처럼 썰룩인다.

《바가야로. 기시마 난까니 간게이 아루몽까?! 난데 오레노 데

끼노 호오니 다즈노까?!(네놈은 무슨 상관이나? 왜 우리 편의 원쑤를 두둔하는거냐?!))》

《흥, 남의 땅에 와 밭 갈고 장사나 하는 사람이 원쑤냐, 남의 땅을 빼앗아 가로탄놈이 원쑤냐?》

《뭣이?!》 아마모도 겐이찌의 안경알너머로 순간 잔인한 미소가 흘렀다. 아프리카 악어는 물역의 송아지를 삼키기전에 파르르 떠는 털보송이 귀를 보고도 눈물 한방울 절끔 흘린다. 악어보다도 흉악한 왜놈은 지금 웃고있다. 인간 란도질에 이끌이 튼 왜놈은 그 량자한 피를 웃고있다.

외로운 섬나라 물에 갇힌 야수의 탈출욕과 점유욕이 피를 즐기는 잔포와 행악으로 이화된것이 무사도정신이 아닐가.

흰 두루마기우로 번개같이 채찍이 내려진다. 석대물은 이를 악물고 왜놈을 노려본다. 두번, 세번 채찍이 두루마기자락을 찢으며 독사처럼 날아들자 석대물은 갈퀴리같은 손을 뻗쳐 왜놈의 팔목을 후려잡았다.

《아마모도 겐이찌 이놈! 우리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다. 너희들 략탈의 범죄엔 두껍을 덮고 우리더러 복종만 하라느냐. 우리 삼천만 백성을 잘못 보았다. 너희 요시노 사꾸조오란 학자가 저항하는 조선사람을 불령도배라 글로 비난했지만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무학이 무식인줄 아느냐? 불쌍한 백성들끼리 물고 뜯으라 하여 그냥 속을줄 아느냐? 네 오늘 내 두루마기를 찢었다만 옛날 네 조상은 웃도 없어 우리 조선인 상복을 훔쳐다 레복으로 입었고 버선작마저 모잔가싶어 대가리에 쓰고 다녔네라. 임진왜란때 우리 사명대사가 너희 일본의 항복 받고 해마다 인피(人皮) 3,000장씩 바치게 처벌한 일을 벌써 잊었느냐? 씨를 말리워도 시원찮을놈들, <리조실록>이요, 고려자기요 끌어가다 못해 가야, 백제, 신라, 고구려, 고려 왕릉마저 도굴해가는놈들, 네놈들이 가미다나 신사신궁을 이 땅에